

# 불어와 한국어의 TOUGH 형용사 구문 대조연구

김 중 명  
이화여자대학교  
lexique@ewha.ac.kr

## 1. 서론 - 불어와 한국어 TOUGH 형용사구문에 대한 정의

본고에서 우리는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한 쌍의 대응되는 환언<sup>1)</sup> 구문에 나타나는 형용사들을 불어 및 한국어의 TOUGH 형용사라고 정의한다.

- (1) a. Il est facile de convaincre Jean (= "It is easy to persuade Jean")  
= b. Jean est facile à convaincre (= "Jean is easy to persuade")

- (2) a. 철수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 b. 철수가 설득하기가 어렵다

즉, 불어 형용사들 중에는 부정법 절<sup>2)</sup>을 진주어로 취하는 비인칭구문 (=1a)과 동일한 부정법 절이 직접목적보어가 빠진 채 서술부 자리에 오고, 생략된 직접목적보어와 공지칭 관계에 있는 요소가 모문의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구문(=1b)을 동시에 갖는 형용사들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어 형용사들 중에는 (1)의 두 구문에 대응되는 (2)와 같은 두 구문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일단의 형용사들이 존재한다. (2a) 구문은 -기 보

<sup>1)</sup> 여기에서 환언이라 함은 환언 및 의사환언을 공히 지칭하고 이하에 나오는 등가 기호 '≐' 역시 환언 또는 의사환언의 관계를 표시한다.

<sup>2)</sup> (1a)의 부정법 절은 Que절(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될 수 없는 부정법 절이다. 이 자리에 분포하는 부정법 절은 두 종류로 하위구분될 수 있다. 즉 Que절(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될 수 없는 부정법 절과 Que절(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될 수 있는 부정법 절이 있다. 2절에서 설명하겠지만 Que절(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될 수 없는 부정법 절만이 (1)의 대응관계를 맺을 수 있다.

문3)을 주어로 취한다는 점에서 (1a)에 대응되는 구문이다. (2b) 구문은 (2a)의 -기 보문이 내포 요소가 생략된 채 서술부 자리에 오고 그 생략된 요소와 공지칭 관계에 있는 요소가 주어 자리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1b)에 대응되는 구문이다.<sup>4)</sup> <sup>5)</sup> 우리는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유사한 두 구문의 환연관계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형용사들을 각각 불어와 한국어의 《TOUGH 형용사》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불어와 한국어의 TOUGH 형용사를 특징짓는 (1)과 (2)의 두 구문을 각각 불어와 한국어의 《TOUGH 구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불어와 한국어의 TOUGH 형용사는, 이런 형식적인 공통점 외에 의미적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언어의 형용사 부류에는 모두 행위의 성취 난이도나 성취 가능성 또는 성취 과정을 평가하는 형용사와 어떤 행위를 하면서 행위자가 경험하는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속한다. 예를 들어 불어의 'facile', 'difficile', 'impossible', 'compliqué', 'épineux' 등의 형용사나 '쉽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복잡하다', '까다롭다' 등의 한국어 형용사가 전자의 경우이고 불어의 'agréable', 'pénible', 'affreux', 'douloureux' 등의 형용사나 '즐겁다', '괴롭다', '끔찍하다', '고통스럽다' 등의 한국어 형용사가 후자의 경우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 언어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들이 불어나 한국어의 TOUGH 형용사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두 구문에 나타나고 있어서 TOUGH 형용사가 언어보편적 부류로 설정될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 TOUGH 형용사 및 그 구문에 관한 언어간의 특징적인 차이점들이 유형론적 관점에서 원리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sup>3)</sup> -기 보문이란 원래 보문소 역할을 하는 명사파생 접사 -기에 의해서 인도되는 보문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보문으로 환연 가능한 것 보문(= 보문명사 것에 의해서 인도되는 보문)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예) 그 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 그 책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첫 보문도 여기서는 -기 보문으로 환연 불가능한 것 보문만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

<sup>4)</sup> 엄밀하게 말하자면, (2b) 구문의 -기 보문은 흔히 내포요소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것이지 항상 그리고 반드시 내포요소가 생략된 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3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한다.

<sup>5)</sup> (2b)의 구문에서 '철수가'가 주어라고 한 것은 불어와의 대응을 위한 편의상의 명칭이고 엄밀하게는 주체어(Montalbetti & alii(1982)에서 Saito가 focus라 부르는 요소)이다. 그리고 (2b)의 주어는 '실득하기가'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Kim(2003a)를 참조할 것.

<sup>6)</sup> 예를 들어, 한국어와 불어 외에도 일본어, 영어, 타갈로그어, 스페인어의 형용사들이 그러하다.

다는 점이다.<sup>7)</sup> 이런 문맥에서 본고에서는 불어와 한국어 TOUGH 형용사 부류들에 주목하여 그 두 부류의 형용사들이 위의 구문상의 유사성 외에 통사·의미적으로 또 다른 어떤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앞으로 우리는 (1a), (2a) 유형의 TOUGH 구문을 《표준 구문》, (1b), (2b) 유형의 TOUGH 구문을 《인상 구문》이라고 각각 부르겠다.

## 2. 불어 및 한국어의 두 TOUGH 구문간의 환언 관계

### 2.1. 불어의 경우

앞에서 우리는 불어의 TOUGH 형용사는 (1)의 두 구문의 환언 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1)의 두 구문이 항상 환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의 두 구문이 환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이 절에서 이 특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음 한 쌍의 불어 TOUGH 구문을 보자.

- (3) a. Pour moi, il est pénible d'apprendre le français<sup>8)</sup>  
 (= "For me, it is painful to learn French")  
 b. Pour moi, le français est pénible à apprendre  
 (= "For me, French is painful to learn")

(3)의 두 구문은 부정법 절의 내포동사에 관한 제약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인상구문(= (3b))을 먼저 살펴본다. 주지하는 바, 인상구문의 부정법 절은 직접목적보어 논항이 비어 있어야 하고 이 논항은 주어와 항상 공지칭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4) a. Cet enfant est facile à garder  
 (= "This child is easy to care for")

<sup>7)</sup> 실지로 Montalbetti et alii(1982)에서는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일본어의 TOUGH 형용사를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했다.

<sup>8)</sup> 불어 TOUGH 구문은 예문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ur N'(또는 'à N') 형태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불어 TOUGH 구문이 취하는 이런 보어에 관해서는 4절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 b. Cette personne sera difficile à persuader  
(= "This person will be tough to persuade")
- c. Ce roman est délicat à traduire  
(= "This novel is delicate to translate")

위의 (4) 예문에 나와 있는 인상구문은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논항이 직접목적보어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준수하는 문법적인 구문이다. 아래 (5) 예문은 'sentir' 동사가 '냄새를 맡다'란 뜻의 타동사로 해석될 때만 정문이 되고 자동사 '냄새가 나다'로는 해석될 수 없다.

(5) La rose est agréable à sentir (= "The rose is pleasant to smell")

또 아래 (6)의 예문들은 이 제약을 위반하여서 모두 비문이다.

- (6) a. \*Ton meilleur ami est facile à devenir  
(= "Your best friend is easy to become")
- b. \*Cet obstacle est dangereux à buter contre  
(= "The obstacle is dangerous to bump against")
- c. \*Cet orateur est pénible à être écouté  
(= "The orator is painful to be heard")

(6a)의 경우,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논항이 주어 속사이다. (6b)의 경우는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논항이 간접목적보어이다. (6c)의 경우는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논항이 주어이다. 그러므로 (6)의 예문들은 모두 위에 언급한 제약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비문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약은 인상구문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예문들은 이 제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문이기 때문이다.

- (7) a. \*Des ailes ne sont pas faciles à avoir  
(= "Wings are not easy to have")
- b. \*Un faible pour les jolies femmes serait difficile à lui connaître  
(= "A weak for the pretty women would be difficult to know in him")

- c. \*L'affront est désagréable à subir  
(= "Affront is unpleasant to undergo")
- d. \*Les étudiants sont ennuyeux à concerner  
(= "The students are tiring to concern")

(7)의 구문은 모두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논항이 직접목적보어임에도 불구하고 비문이다. 그러므로 인상구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인상구문의 내포동사가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는 통제동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지적 행위란 행위주가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모두 명령법으로 쓰일 수 있고 'demander(= "demand")', 'commander(= "command")', 'essayer(= "try")' 동사의 부정법 보족절에 분포할 수 있는 동사라고 형식적으로 정의한다.<sup>9)</sup> 이 정의에 입각하면 실제로 (4)의 인상구문의 내포동사는 모두 통제동사이고 (7)의 내포동사는 모두 다 통제동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4)의 내포동사는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제동사의 정의를 만족시키지만 (7)의 내포동사는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제동사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 (en comparaison avec (4))

- a. Gardez cet enfant! / Persuadez cette personne! / Traduisez ce roman!
- b. Je lui ai (demandé + commandé) de (garder cet enfant + persuader cette personne + traduire ce roman)
- c. J'ai essayé de (garder cet enfant + persuader cette personne + traduire ce roman)

(9) (en comparaison avec (7))

- a. \*Ayez des ailes! / \*Connaissez-lui un faible pour les jolies femmes!
- \*Subissez l'affront! / \*Concernez les étudiants!

---

<sup>9)</sup> 여기서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통제동사(control verb)라고 부른 것은 Ransom(1988)의 명칭을 빌려온 것이고 통제동사에 대한 형식적 정의 역시 Ransom(1988)의 영어 통제동사의 형식적 기준을 필자가 붙여(이후 한국어의 경우도 동일함)에 재적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 b. \*Il m'a (demandé + commandé) (d'avoir des ailes + de lui connaître un faible pour les jolies femmes + de subir l'affront + de concerner les étudiants)
- c. \*J'ai essayé (d'avoir des ailes + de lui connaître un faible pour les jolies femmes + de subir l'affront + de concerner les étudiants)

그렇지만 표준구문의 경우는 부정법 보문의 내포동사에 이러한 제약이 없다. 표준구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동사가 내포동사로 분포할 수 있다.

- (10)a. Pour moi, il est difficile d'être riche  
(= "For me, it is difficult to be rich")
- b. Pour moi, il est douloureux d'être accusé  
(= "For me, it is painful to be accused")
- c. Pour moi, il est agréable d'aller à Paris  
(= "For me, it is pleasant to go to Paris")
- d. Pour moi, il est triste d'avoir trois enfants  
(= "For me, it is sad to have three children")
- e. Pour moi, il est pénible d'apprendre le français  
(= "For me, it is painful to learn French")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구문의 부정법 절에는 직접목적보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10a), (10b), (10c))가 올 수도 있고 통제동사가 아닌 동사(= (10a), (10b), (10d))도 내포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구문은 그 부정법 절의 내포동사로 직접목적보어를 갖는 통제동사가 올 경우에만 인상구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조건들은 인상구문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일 뿐 여전히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는 주어와 공치칭 관계를 이루는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논항이 직접목적보어이고 부정법 절의 내포동사가 통제동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비문이다.

- (11)a. \*Jean est difficile à envoyer acheter du sel  
(= "Jean is difficult to send to buy salt")
- b. \*Il est impossible à amener dîner à la maison  
(= "He is impossible to bring along to dinner in the house")

그렇다면 위의 조건 외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인상구문이 형성될 수 있을까? 다음의 faire V<sub>inf</sub> (= "make + V<sub>inf</sub>")형태의 사역동사구가 부정법 절의 내포동사로 분포하고 있는 인상구문의 예는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12) a. La neige est facile à faire fondre  
 (= "Snow is easy to make melt")  
 b. Ce pull en laine n'est pas facile à faire sécher  
 (= "This wool sweater is not easy to make dry")  
 c. Ce tas de papier est facile à faire brûler  
 d. La température du malade sera difficile à faire baisser  
 e. Le bruit sera impossible à faire baisser  
 f. Le poulet sera facile à faire mariner  
 g. Cet outil en acier inoxydable sera impossible à faire rouiller  
 h. L'eau pour le thé sera difficile à faire bouillir  
 i. Une plaie aussi profonde sera difficile à faire cicatriser  
 j. Cette substance sera facile à faire cristalliser
- (13) a. \*Le président est difficile à faire agir  
 (= "The president is difficult to make act")  
 b. \*Le prince sera facile à faire régner sur son territoire  
 (= "The prince will be easy to make reign over his territory")  
 c. \*Le bourreau sera facile à faire sévir  
 d. \*L'acrobate sera facile à faire jongler  
 e. \*Les étudiants sont faciles à faire rouspéter  
 f. \*Le sage sera faciles à faire méditer  
 g. \*L'enfant sera facile à faire balbutier  
 h. \*L'enfant sera facile à faire cogner à la porte  
 i. \*L'actrice est difficile à faire résister aux avances du metteur en scène  
 j. \*L'accusé sera difficile à faire réfléchir

(12), (13) 구문의 주어는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직접목적보어 논항과 공치칭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부여되는 의미역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12) 구문의 주어는 모두 '대상(Theme)'라는 의미역을 지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대상<sup>10)</sup>이란 주어의 의지적 행위에 의해 (상태

의 변화나 위치의 변화와 같은) 영향(=Affecter)을 받거나 그 행위가 직접 미치는 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13) 구문의 주어는 모두 어휘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사역주의 사역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역동사 faire 뒤에 나오는 부정법의 행위를 의지적으로 하는 ‘행위주(Agent)’라고 분석될 수 있다. 즉 대상임과 동시에 행위주인 의미역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가 대상의 의미역으로만 특징지어진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인상구문이 성립된다고 여겨진다. (11)의 구문으로 돌아가서 (11) 구문이 비문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구문도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비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1) 구문의 주어는 이동의 사역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지만 그와 동시에 뒤에 나오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법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주라고도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11)의 구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그 구문은 적합성(acceptabilité)을 획득한다.

(14) a. Cette lettre est difficile à envoyer à Paul

(= “The letter is difficult to send to Paul”)

b. Les fruits exotiques sont impossibles à amener à Paris

(= “The tropical fruits are impossible to bring to Paris”)

(14) 구문은 (11) 구문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적합한 구문이 되는가? (11) 구문에 대해서 (14) 구문이 지니는 차이점은 주어 논항에 부여되는 의미역에 있다. (14) 구문의 주어는 (11) 구문과는 달리 오직 대상의 의미역이 부여될 뿐이다.<sup>12)</sup>

다음 두 구문의 적합성 차이는 바로 이런 우리의 설명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예를 구성한다.

(15) a. \*Le président sera facile à faire parler

(= “The president will be easy to make speak”)

b. Le prisonnier sera facile à faire parler

<sup>10)</sup> 이 개념에 대해서는 Levin & Rappaport(1995)와 Labelle(1992)를 참조할 것.

<sup>11)</sup> 이와 같은 복수의 의미역 부여(Multiple theta-role assignment)에 관해서는 Nichigauchi(1984)를 참조할 것.

<sup>12)</sup> 불어 envoyer 동사에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 ‘보내다’ 구문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즉, 직접목적어 자리에 행위자임과 동시에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물명사가 올 때와 순수하게 대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비인물명사가 올 때 이 구문은 동사적 행태를 달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Kim(2003b)를 참조할 것.



(= "The prisoner will be easy to make speak")

(15)의 예에서 (15a)가 일반적으로 비문으로 해석되는 것은 죄수와는 달리, 대통령이란 그 위상과 권력을 고려해 볼 때 사역주의 일방적인 영향 하에서 비의지적으로 말하는 대상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고 반면에 (15b)의 죄수는 일반적으로 (검사나 수사관 등의) 사역주의 일방적인 영향 하에서 비의지적으로 말하는 대상이라고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3)</sup> 즉 (15a)의 'Le président'이 완전한 대상이 아니라 대상 입과 동시에 'parler' 동사의 행위주인 반면에 (15b)의 'prisonnier'는 완전한 대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두 쌍의 구문의 적합성 차이 역시 바로 이런 우리의 설명을 지지하는 예이다.

(16) a. Les enfants sont impossibles à faire taire

(= "The children are impossible to make silence")

b. \*Les enfants sont impossibles à faire se taire

(= "The children are impossible to make silence themselves")

(17) a. Les enfants seront impossibles à faire asseoir

(= "The children will be impossible to make seat")

b. \*Les enfants seront impossibles à faire s'asseoir

(= "The children will be impossible to make seat themselves")

'se taire' (= "silence oneself" (= become quiet)), 's'asseoir' (= "seat oneself" (= sit down))와 같은 대명동사는 (18),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역동사 faire와 결합하여 구문을 이룰 때 재귀대명사 (= 'se')를 수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18) a. Pierre fait taire les enfants

(= "Pierre makes the children silence")

b. Pierre fait se taire les enfants

(= "Pierre makes the children silence themselves")

(19) a. Il a fait asseoir les enfants

(= "He makes the children seat")

---

<sup>13)</sup> (15)의 두 예문과 이 두 예문의 적합성 차이에 대한 위의 설명은 Legendre(1989)를 인용한 것임.

b. Il a fait s'asseoir les enfants

(= "He makes the children seat themselves")

위의 (18), (19)에서 재귀대명사(= 'se')가 생략된 (18a), (19a) 구문들과 재귀대명사가 나타나는 (18b), (19b) 구문들은 그 의미에서 섬세한 차이를 보인다. (18a)와 (19a)는 주어가 권위와 강압으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앉히는 의미라면 (18b)와 (19b)는 주어가 아이들을 설득하여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설득에 설득되어 스스로 조용히 하거나 앉는다는 의미이다.<sup>14)</sup> 다시 (16), (17) 예문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16),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역동사와 se taire, s'asseoir 대명동사가 결합된 동사구는 재귀대명사 se가 생략된 경우에만 인상구문에 내포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18a)와 (19a) 구문에서는 주어가 대상의 의미역으로 특징지어지고 (18b)와 (19b)의 경우는 주어가 대상과 행위자의 의미역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관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인상구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부정법 절의 생략된 직접목적보어와 공지칭을 이루어야 함과 동시에 부여되는 의미역이 대상이어야 하고 부정법 절의 내포동사가 통제동사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조건이 지켜졌다고 해도 여전히 표준구문이 항상 인상구문으로 환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표준구문과 인상구문 사이에는 내포동사의 분포 제약에 관한 차이 외에 또 다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상구문과는 달리, 표준구문은 부정법 절 대신에 Que절이나 le fait que절이 분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법 절이 Que절이나 le fait que절과 환언관계를 맺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a)와 (10b)는 (20)과 같이 환언할 수 있다.

- (10) a. Pour moi, il est difficile d'être riche  
(= "For me, it is difficult to be rich")
- b. Pour moi, il est douloureux d'être accusé  
(= "For me, it is painful to be accused")
- c. Pour moi, il est agréable d'aller à Paris  
(= "For me, it is pleasant to go to Paris")
- d. Pour moi, il est triste d'avoir trois enfants

<sup>14)</sup> Legendre(1989)는 (15a)와 (15b) 그리고 (16a)와 (16b) 구문의 의미가 서로 같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여 모국어화자에게 물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두 쌍의 구문은 그 의미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정확하게 같지 않다.

- (= "For me, it is sad to have three children")  
 e. Pour moi, il est pénible d'apprendre le français  
 (= "For me, it is painful to learn French")

(20) a. (= (10a))

Pour moi, (le fait que je suis riche + que je sois riche) est difficile

(= "For me, (the fact that I am rich + that I am rich) is difficult")

b. (= (10b))

Pour moi, (le fait que je suis accusé + que je sois accusé) est douloureux

(= "For me, (the fact that I am accused + that I am accused) is painful")

여기서 (10e)의 표준구문을 살펴보자. 이 구문은 부정법 절의 내포동사로 통제능사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상의 의미역을 지니는 직접목적보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래 (21)에 보는 바와 같이 대응되는 인상구문을 갖는다. 그렇지만 (21)의 두 구문(= 표준구문과 인상구문)이 항상 환연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1a)의 표준구문의 부정법 절은 그 해석이 중의적이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가능한 두 해석 중 하나의 경우에만 인상구문과 환연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21) a. Pour moi, il est pénible d'apprendre le français

(= "For me, it is painful to learn French")

b. Pour moi, le français est pénible à apprendre

(= "For me, French is painful to learn")

(21a) 표준구문의 부정법 보문이 어떻게 해서 중의적이고 (21b)의 인상구문은 그렇지 않은 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21a)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불어를 배우는 행위 또는 배우는 과정이 괴롭다"는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불어를 배운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괴롭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21b)의 인상구문은 첫 번째 해석(= "불어를 배우는 행위 또는 배우는 과정이 괴롭다")만을 지닌다. 그러므로 (21)의 두 TOUGH 구문이 대응 관계를 맺으려면 (21a)의 표준구문이 첫 번째 해석을 지녀야만 한다. 그런데 (21a)의 표준구문은 해석의 중의성에 상응하는 통사적 중의성을 수반한다. (21a)의 표준구문이 첫 번째 해석을 지닐 경우에는 부정법 절이

Que절 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될 수 없다. 그렇지만 (21a)의 표준구문이 두 번째 해석을 지닐 경우에는 부정법 절이 Que절 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될 수 있다. 즉 (21a) 구문은 다음과 같이 환언되는 경우가 있다.

(22) Pour moi, (le fait que j'apprend le français + que j'apprenne le français) est pénible  
 (= For me, (the fact that I learn French + that I learn French) is painful)

(21a) 구문이 (22)의 구문으로 환언될 경우는 바로 그 구문이 두 번째 해석, 즉 “불어를 배운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괴롭다”는 해석을 지닐 경우이고 이럴 경우 (21a)의 표준 구문은 (21b)의 인상 구문으로 환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어의 표준구문은 부정법 절 내포동사가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통제동사이고 직접목적보어가 대상의 의미역을 취하며 이 부정법 절이 Que절 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되지 않을 경우에만 인상구문과 서로 환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적인 차원에서 불어의 두 TOUGH 구문의 환언 조건을 다시 말하자면, 표준구문의 부정법 절이 사실이나 사건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를 표현할 경우에만 표준구문은 인상구문과 대응된다.<sup>15)</sup> 표준구문의 부정법 절은 경우에 따라 사실, 사건, 의지적 행위를 표현하고 이 부정법 절이 사실이나 사건을 나타낼 경우에는 Que절이나 le fait que절로 대치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표준구문이 대응되는 인상구문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상구문의 부정법 절은 항상 의지적 행위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 2.2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의 경우에는, 두 TOUGH 구문 사이의 환언관계에 불어와 같은 그런 복잡한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 -기 보문을 취하는 표준구문은 모두 예외 없이 인상구문으로 전환된다.<sup>16)</sup> 그렇지만 한국어의 두 TOUGH 구

<sup>15)</sup> 여기서 말하는 사실, 사건, 의지적 행위라는 표현은 Ransom(1988)의 정의에 입각해서 사용한 것이다.

<sup>16)</sup> 그렇지만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구문은 -기 보문 대신에 것 보문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구문이 것 보문을 취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상구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문은 -기 보문의 내포동사에 관한 한 불어 인상구문의 내포동사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선택제약 조건이 관찰된다. 즉, 두 TOUGH 구문의 -기 보문에는 공히 통제동사만이 분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어의 경우, 통제동사가 명령형이 가능하고 ‘명령하다’, ‘노력하다’ 동사의 보족절에 내포할 수 있는 동사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한국어 TOUGH 구문은 표준구문이든 인상구문이든 간에 바로 이런 제약에 반하기 때문에 모두 비문이라고 판단된다.

- (23) a. \*독감에 걸리기가 고통스럽다  
b. \*독감이 걸리기가 고통스럽다
- (24) a. \*왼쪽 어깨를 다치기가 까다롭다  
b. \*왼쪽 어깨가 다치기가 까다롭다
- (25) a. \*소매치기를 당하기가 가능하다  
b. \*소매치기가 당하기가 가능하다
- (26) a.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슬프다  
b. \*그런 유혹이 빠지기가 슬프다

왜냐하면 위의 (23)-(26) 구문의 -기 보족절 내포동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제동사가 아니며 따라서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 (27) a. \*독감에 걸려라!  
b. \*그는 나에게 독감에 걸리라고 명령했다.  
c. \*?나는 독감에 걸리려고 노력했다.
- (28) a. \*왼쪽 어깨를 다쳐라!  
b. \*?그는 나에게 왼쪽 어깨를 다치라고 명령했다.  
c. \*?나는 왼쪽 어깨를 다치려고 노력했다.
- (29) a. \*소매치기를 당해라!

예) 나에게는 영희가 철수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슬프다  
≠ \*나에게는 철수가 (영희가 설득하지 못한 것이 + 영희가 설득하지 못하기가) 슬프다

- b. \*그는 나에게 소매치기를 당하라고 명령했다.
- c. \*?나는 소매치기를 당하려고 노력했다.

- (30) a. \*그런 유혹에 빠져라!  
 b. \*그는 나에게 그런 유혹에 빠지라고 명령했다.  
 c.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려고 노력했다.

게다가 한국어의 경우는 3절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인상구문의 주어가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직접목적보어 논항과 항상 공지칭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불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경우는 -기 보문을 지닌 표준구문이 모두 인상구문으로 전환된다.

### 3. 불어와 한국어 인상구문의 공지칭 제약

앞서 언급한 대로 불어의 인상구문은 주어가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하나의 논항과 항상 공지칭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비어 있는 논항은 반드시 부정법 동사의 직접목적보어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 (31)a. Cet enfant est facile à garder (= "This child is easy to care for")  
 b. Cette personne sera difficile à persuader  
 (= "This person will be tough to persuade")  
 c. Ce roman est délicat à traduire  
 (= "This novel is delicate to translate")

그렇지만 한국어의 인상구문은 그런 제약이 없다.

- (32) a. 그 책을 읽기가 어렵다      b. 그 책이 읽기가 어렵다

- (33) a. 나에게서는 철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가 제일 수월하다  
 b. 철수가 나에게서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제일 수월하다

- (34) a. 여기에서 한라산을 보기가 어렵다  
 b. 여기가 한라산을 보기가 어렵다  
 c. 여기에서가 한라산을 보기가 어렵다

한국어 인상구문은, 위의 예문 (3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 그 책이)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보어 보족절의 비어 있는 논항이 직접목적어일 수도 있지만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목적어가 아닌 다른 논항일 수도 있다. (33)의 인상구문의 경우, 주어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보어 보족절의 비어 있는 논항은 '철수에게'이고 이는 직접목적어가 아니다. 또 (34)의 인상구문의 경우, 주어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보어 보족절의 비어 있는 논항은 '여기에서'이고 이 역시 직접목적어가 아니다.

게다가 (35),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인상구문은 주어와 공지칭 관계를 이루는 보어 보족절의 요소가 논항이 아닌 부가어일 수도 있다.

- (35)a. 나는 여름에 축구를 하기가 즐겁다
- b. 여름이 나는 축구를 하기가 즐겁다

- (36)a. 나는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가 지겹다
- b. 나는 이 식당이 음식을 먹기가 지겹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의 경우는 아래 (37)에서 보는 것처럼, 논항이든 부가어이든 간에 보어 보족절에 비어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 (37)a. (북경에 + 그 곳에) 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찾기가 불편하다
- b. 북경이 그 곳에 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찾기가 불편하다<sup>17)</sup>

(37)의 인상구문은 보어 보족절에 주어와 공지칭이면서 생략된 요소가 없다. 그러므로 불어의 인상구문은 주어가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하나의 논항과 항상 공지칭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비어 있는 논항은 반드시 부정법 동사의 직접목적어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인상구문은 주어와 보어 보족절 사이에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sup>18)</sup>

<sup>17)</sup>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은 한국어 TOUGH 구문에 관한 생성문법 틀 안에서의 또 다른 논의는 Ibid를 참조할 것.

## 4. 보어의 형태 및 제약

### 4.1. 보어의 형태

불어 TOUGH 구문은 pour Nhum(= 인물명사) 또는 à Nhum 형태의 보어를 수의적으로 취한다.

- (38) a. Il est agréable à Paul de lire ce roman
- b. Pour Paul, il est agréable de lire ce roman
- c. Pour Paul, ce roman est agréable à lire

표준구문의 경우는 pour Nhum 또는 à Nhum 형태의 보어를 수의적으로 취할 수 있고 인상구문의 경우는 pour Nhum 형태의 보어는 취할 수 있지만 à Nhum 형태의 보어는 취할 수 없다. 즉 (38c)에 대응되는 다음과 같은 à Nhum 형태의 보어를 취하는 인상구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 (39) a. \*A Paul, ce roman est agréable à lire
- b. \*Ce roman est agréable à Paul à lire!<sup>19)</sup>

그런데 Ruwet(1972)에 의하면, pour Nhum과 à Nhum 형태의 두 보어는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38a)의 à Nhum 형태의 보어는 서술어 형용사 'agréable'이 나타내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 즉 의미역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험주(Expérienceur)이고 (38b)나 (38c)의 pour Nhum 형태의 보어는 일종의 평가자(Evaluateur)의 기능을 한다. 즉 (38b)나 (38c)의 'Pour Paul'은 뒤에 나오는 구문 부분이 나타내는 내용의 평가를 하는 평가자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이 두 보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문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40) Pour moi, il est agréable à Pierre de lire ce roman

<sup>19)</sup> Montalbetti & alii(1982)에 나오는 Saito의 일본어 TOUGH 형용사 구문 분석에 의하면 일본어 인상구문도 한국어와 이 점에서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sup>20)</sup> 우리는 (39)의 구문이 왜 비문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다만 통일 요소(= à + 명사구)가 한 구문에서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 비문의 이유가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이 두 보어가 지니는 또 다른 차이점은 à Nhum이 지칭하는 인물은 반드시 부정법 절이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와 동일한 반면에 pour Nhum이 지칭하는 인물은 부정법 절이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에서 à Nhum이 지칭하는 인물은 반드시 부정법 절의 의미상의 주어여야 한다. 그리고 pour Nhum이 지칭하는 인물은 à Nhum이 지칭하는 인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법 절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없다.

한국어 TOUGH 구문도 불어 TOUGH 구문의 pour Nhum 또는 à Nhum 형태의 보어에 상응하는 'Nhum-에게' 보어를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어와 다른 점은 'Nhum-에게' 보어가 앞서 정의한 평가자와 경험자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다.

(41) 나에게는 그 일을 하기가 귀찮다

(41) 구문에서 귀찮음을 느끼는 사람은 '나'이고 동시에 '그 일을 하기가 귀찮다'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나'인 것이다. 그리고 'Nhum-에게' 보어가 지칭하는 인물은 반드시 -기 보문절이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hum-에게' 보어가 지칭하는 인물과 다른 인물을 -기 보문절의 내포주어 자리에 두면 비문이 된다.

(42) 나에게는 (내가 + \*철수가) 그 일을 하기가 귀찮다

#### 4.2. 보어의 인칭 제약

앞서 불어 TOUGH 구문은 pour Nhum 또는 à Nhum 형태의 보어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 보어에 분포하는 인물명사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즉 인물명사로 판단되는 모든 명사가 분포할 수 있다.

- (43)a. Il est agréable à Paul de lire ce roman  
 b. Pour Paul, il est agréable de lire ce roman  
 c. Pour Paul, ce roman est agréable à lire

그렇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한국어 TOUGH 구문은 두 가지 종류로 하위구분된다. 한국어 TOUGH 구문에는 'Nhum-

에게' 보어의 인물명사에 인칭제약이 있는 구문과 인칭제약이 없는 구문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44)의 예문은 보어의 인물명사에 인칭제약이 있는 첫 번째 유형을 나타내고 (45)의 예문은 인칭제약이 없는 두 번째 유형을 나타낸다.

- (44) a. (나에게는 + \*너에게는 + \*철수에게는) 그 일을 하기가 (지겹다 + 못마땅하다 + 슬프다)  
 b. (\*나에게는 + 너에게는 + \*철수에게는) 그 일을 하기가 (지겹니? + 못마땅하니? + 슬프니?)
- (45) a. (나에게는 + 너에게는 +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기가 (수월하지 + 복잡하지 + 까다롭지) 않다  
 b. (나에게는 + 너에게는 +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기가 (수월하니? + 복잡하니? + 까다롭니?)

(44)의 예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은 'Nhum-에게' 보어의 인물명사에 인칭제약이 있다. 평서문의 경우는 (4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칭 인물명사만이 허용되고 의문문의 경우는 (4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인칭 인물 명사만이 가능하다.<sup>20)</sup> 반면에 (45)의 예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유형은 'Nhum-에게' 보어의 인물명사에 인칭제약이 없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은 의미적으로도 구분된다. 전자의 유형은 어떤 사태가 야기하는 주관적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유형은 어떤 사태나 행위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어의 TOUGH 형용사 역시 앞서 언급한대로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사태가 야기하는 주관적 심리를 나타내거나 어떤 사태나 행위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불어의 TOUGH 형용사는 한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주관적 심리를 나타낼 경우에도 보어에 인칭제약이 없다. 아래 예문이 그 예이다.

<sup>20)</sup> 이런 제약을 Yang(1972)은 equi-subject constraint라고 그리고 Lee(1973)은 speaker-experiencer coreferentiality requirement라고 각각 불렀다. 한편 Kuroda(1973)과 Inoue(1978)에 의하면, 일본어의 대응되는 구문에서도 동일한 인칭제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후자는 (44a)의 '\*철수에게는 그 일을 하기가 슬프다'가 문법적인 문장이라고 확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구문은 실제로 문어체, 즉 소설 같은 데에서 쓰여 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기심(1989)의 '화자의 시점 옮기기'라는 장치에 의해서 이런 인칭제약이 해소된 것으로 여겨질 때만, 즉 화자의 시점이 3인칭으로 옮겨간 것으로 전제될 때만 가능한 문장이다.

- (46) a. Pour (Marie + toi + moi), il est triste de regarder le film  
 b. Pour (Marie + toi + moi), le film est triste à regarder

이는 한국어와 불어의 주관적 심리를 나타내는 형용사(= 심리형용사)의 의미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어와는 달리, 불어의 심리형용사는 주관적 심리를 표현할 뿐 아니라 주관적 심리가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양상도 표현한다. 바로 이런 의미 차이에 기인하여 불어 심리형용사의 TOUGH 구문에는 보어에 인칭제약이 없다고 여겨진다.

## 5. 연관 구문 (construction associée)

불어와 한국어 TOUGH 형용사는 위에서 정의한 TOUGH 구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관련구문을 허용한다.

### 5.1. 불어의 경우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불어 표준구문의 주어 자리에는 부정법 절 대신에 Que절이나 le fait que절이 올 수 있다.

- (47) a. Le fait qu'il connaît l'anglais est embêtant pour moi  
 b. Pour moi, que ce problème me regarde est ennuyeux

Que절이나 le fait que절은 의미적으로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서술어 형용사가 표현하는 주관적 감정이나 상태를 야기하는 사실이나 사건을 나타낸다.

### 5.2.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의 경우도 이 점에서 불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한국어 표준구문은 주어 자리에는 -기 보문 대신에 것 보문이 올 수 있다.

- (48) a. 철수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나에게서 슬펐다  
 b. 불어를 모르는 것이 나에게서 불편하다

것 보문은 불어 표준구문에 분포하는 Que절이나 le fait que절처럼, 의미적으로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서술어 형용사가 표현하는 주관적 감정이나 상태를 야기하는 사실이나 사건을 나타낸다. 그런데 한국어 표준구문 중에는 주어 자리에 것 보문이 분포할 경우, ‘데 보문+-에’ 형태의 또 다른 보어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8b)가 바로 그런 표준구문의 경우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b)의 구문은 ‘데 보문+-에’ 형태의 보어를 추가할 수 있다.

(49)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불어를 모르는 것이 너에게 불편하다

그렇지만 모든 표준구문이 ‘데 보문+-에’ 형태의 보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지로 (48a)의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50)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철수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나에게 슬펐다

‘데 보문+-에’ 보어를 취할 수 있는 TOUGH 형용사는 ‘Nhum-에게’ 보어에 인칭 제약이 없고 주로 행위의 성취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객관형용사 부류만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심리형용사 부류의 TOUGH 형용사는 (50)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데 보문+-에’ 보어를 취할 수 없다.

## 6. 유사 구문과의 차이점

### 6.1. 불어의 경우

불어의 인상구문은 일견 동일한 구문형태를 지니지만 구별될 필요가 있는 유사구문이 존재한다. 아래 (51)은 위에서 정의한 불어의 인상구문의 예이고 (52), (53)는 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유사구문이다.

(51) a. Ce verre est difficile à casser  
b. Cette somme est pénible à dépenser

(52) a. Ce levier est apte à soulever dix tonnes

b. La chambre est prête à servir

- (53) a. Marie est jolie à regarder  
b. Cette voiture est nerveuse à conduire

(51)의 불어 인상구문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51')의 표준구문과 대응이 되지만 (52), (53)의 유사구문은 (52'),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불가능하다.

- (51') a. Il est difficile de casser ce verre  
b. Il est pénible de dépenser cette somme

- (52') a. \*Il est apte pour ce levier de soulever dix tonnes  
b. \*Il est prêt de servir la chambre

- (53') a. \*Il est joli de regarder Marie  
b. \*Il est nerveux de conduire cette voiture

또 아래 예에서 보는 것처럼, (51)의 인상구문의 부정법 절은 대리사 y로 대리되지 않지만 (52)과 같은 유사구문의 동일한 요소는 y로 대리된다. 참고로 (53)의 유사구문 역시 부정법 절은 대리사 y로 대리되지 않는다.

- (51'') a. \*Ce verre y est difficile  
b. \*Cette somme y est pénible

- (52'') a. Ce levier y est apte  
b. La chambre y est prête

- (53'') a. \*Marie y est jolie  
b. \*Cette voiture y est nerveuse

마지막으로 (51)의 인상구문은 부정법 절이 빠지면 원칙적으로 그 구문이 비문이 되지만<sup>21)</sup>, (53) 구문의 동일한 요소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

---

<sup>21)</sup> 인상구문의 부정법 절은 아래 (예1)과 같이, 예외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

- (51'') a. \*Ce verre est difficile  
 b. \*Cette somme est pénible

- (53'') a. Marie est jolie  
 b. Cette voiture est nerveuse

(52)과 같은 구문을 갖는 형용사는 TOUGH 형용사와는 달리, 항상 à N (또는 à Vinf.) 형태의 보어를 그 구문이 필수적으로 취하는 형용사이다. 한편 (53)과 같은 구문을 갖는 형용사는 그 수가 TOUGH 형용사보다 훨씬 더 많다.<sup>22)</sup> 이 형용사들은 의미적으로 모두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 평가형용사)들이며 또 그 평가를 위해서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형용사들이다.<sup>23)</sup> 그리고 (53) 구문의 부정법 절 요소는 바로 평가에 수반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 6.2. 한국어의 경우

는데 이런 경우는 부정법 절이 항상 복원 가능(= récupérable)함으로 적정 요소로 삭제됐다고 분석된다.

- (예1) a. Ce livre est facile (à lire)  
 b. Ce travail est pénible (à faire)

Picabia(1976)은 (예2)의 행태를 보이는 'commode'와 같은 형용사는 (51)의 인상구문도 아니고 (53)의 유사구문도 아닌 중간적인, 또 다른 유형의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 (예2) a. Ce sac est commode à porter  
 b. Ce sac est commode  
 c. Porter ce sac est commode

그렇지만 우리는 'commode'가 TOUGH 형용사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예2b)에서 부정법 절이 생략된 것은 (예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경우이고 또 이때 부정법 절은 복원 가능함으로 적정 요소가 삭제된 것으로 분석한다. 실지로 'commode' 형용사 구문의 경우, 부정법 절이 생략될 수 없는 예를 아래와 같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 (예3) a. Marie est commode à rencontrer / \*Marie est commode  
 b. La rivière est commode à traverser / \*La rivière est commode  
 c. Le texte est commode à traduire / \*Le texte est commode

<sup>22)</sup> Picabia(1976) 참조.

<sup>23)</sup> 이런 형용사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bid를 참조할 것.

한국어의 TOUGH 형용사들은 인상구문과 유사한 다음과 같은 구문을 갖는다.

- (54) a. 그 책이 읽기에 쉽다
- b. 그 영화는 보기에 슬프다

즉 일견 이 구문과 인상구문의 형태적 차이는 인상구문의 경우, -기 보문이 주격조사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이 구문은 -기 보문이 장소를 나타내는 -에 조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정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 유사구문은 인상구문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이 유사구문은 인상구문과는 달리, -기 보문의 생략된 요소가 반드시 직접목적어이고 또 주어와 공지칭이어야만 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아래의 유사구문은 모두 이런 제약을 어겨서 비문이다.

- (55) a. \*?이 책이 서론을 읽기에 쉽다
- b. \*이 영화관이 영화를 보기에 슬프다

그러나 인상구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제약이 없다. 그래서 (55)에 대응되는 다음과 같은 인상구문이 가능하다.

- (56) a. 이 책이 서론을 읽기가 쉽다
- b. 나는 이 영화관이 영화를 보기가 슬프다

이 유사구문은 앞서 불어의 (53)와 같은 평가형용사구문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평가형용사구문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불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유사구문을 취할 수 있는 형용사의 수는 TOUGH 형용사보다 훨씬 더 많다. 아래의 예는 TOUGH 형용사가 아닌 다른 형용사들이 이런 유사구문을 취하고 있는 예이다.

- (57) a. 이 과일은 먹기에 시다
- b. 이 가방은 들기에 무겁다
- c. 고무줄이 당기기에 팽팽하다

이런 형용사들은 모두 의미적으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며 또 그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형용사들이다. 또 이 구문의 '-기

보문+-에' 형태의 보어는 바로 평가에 수반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 7. 결론

본고는 (58), (59)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한 쌍의 대응되는 환언 구문에 나타나는 불어 및 한국어의 TOUGH 형용사들이 통사·의미적으로 어떤 공통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는가를 살펴보았다.

(58) a. Il est facile de convaincre Jean

b. Jean est facile à convaincre

(59) a. 철수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b. 철수가 설득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첫째, 불어 및 한국어의 두 TOUGH 구문(= 표준구문과 인상구문)이 환언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제약조건을 밝혔다. 우리는 불어의 경우, 표준구문의 부정법 절 내포동사가 직접목적보어를 취하는 통제동사이고 직접목적보어는 대상의 의미역을 지녀야 하며 이 부정법 절이 Que절(또는 le fait que절)로 환언되지 않을 경우에만 인상구문과 환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였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기 보문을 지니는 표준구문은 모두 인상구문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였다. 둘째, 우리는 두 언어의 인상구문이 보이는 통사적 특성을 서로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어의 인상구문은 주어가 부정법 절의 비어 있는 하나의 논항과 항상 공지칭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비어 있는 논항은 반드시 부정법 동사의 직접목적보어이어야 하며 부정법절의 동사는 반드시 통제동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인상구문은 주어와 보어 보속절 사이에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셋째로 우리는 불어 및 한국어의 두 TOUGH 구문이 수의적으로 취하는 보어의 행태 및 인칭제약의 정체를 밝혔다. 불어의 경우는 pour + Nhum 또는 à + Nhum 형태의 보어를 취하고 한국어는 Nhum+-에게 형태의 보어를 주로 취한다. 그리고 이 보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불어의 경우, pour + Nhum 보어가 의미역적으로 평가자(= Evalueateur)의 기능을 담당하고 à + Nhum 보어는 경험자(= Expérienceur)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평가자와 경험자는 서로 다른 인물을 지칭할 수 있으며, 한국어의 경우에 관찰되는 그런 인칭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Nhum+-에게 보이는 평가자와 경험자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 그리고 평가자와 경험자는 반드시 동일인물이다. 또 보어의 인물명사에 있어 인칭 제약이 있는 유형과 인칭 제약이 없는 유형, 두 유형의 TOUGH 구문이 관찰된다. 넷째로 우리는 불어와 한국어 TOUGH 형용사들이 정의한 TOUGH 구문 외에 어떤 연관 구문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어의 경우에는 표준구문의 주어 자리에는 부정법 절 대신에 Que절이나 le fait que절이 오는 구문이 가능하고 한국어의 경우도 표준구문의 주어 자리에는 -기 보문 대신에 컷 보문이 오는 구문이 가능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언어의 TOUGH 구문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구문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불어의 인상구문은 일견 동일한 구문형태를 지니지만 구별될 필요가 있는 유사구문들(= (60), (61))이 존재하며 한국어의 인상구문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구별될 필요가 있는 유사구문(= (62))이 존재한다.

- (60) a. Ce levier est apte à soulever dix tonnes
- b. La chambre est prête à servir

- (61) a. Marie est jolie à regarder
- b. Cette voiture est nerveuse à conduire

- (62) a. 그 책이 읽기에 쉽다
- b. 그 영화는 보기에 슬프다

우리는 두 언어의 인상구문이 이런 유사구문들과 어떻게 형식적으로 구별되는지를 밝혔다. 아울러 불어의 (61)과 같은 형태의 유사구문과 한국어의 (62)와 같은 형태의 유사구문은 두 언어에서 각각 같은 기능을 담당하며 서로 대응되는 구문이라는 점을 밝혔다. 즉 이 두 구문(= (61), (62))의 형용사들은 의미적으로 모두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며 또 그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형용사들이다. 그리고 (61) 구문의 부정법 절 요소와 (62) 구문의 -기 보문+-에 형태의 보어는 바로 이 평가에 수반되는 행위를 표현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불어와 한국어, 두 개별언어에 대한 연구로서도 그 의의를 가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언어보편적 부류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TOUGH 형용사에 대한 유형론 구축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Chomsky, N. 1977. "On Wh-Movement", dans *Formal Syntax* édité par P. Culicover, T. Wasow et A. Akmajian, Academic Press.
- \_\_\_\_\_. 1982.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Faucaunnier, G. 1974. *La coréférence: syntaxe ou sémantique ?*. Seuil.
- Gerds, D.-B. & C. Youn. 1988. "Korean psych constructions: advancement or retreat?", dans *Papers from the 24th annual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Chicago University.
- Inoue, K. 1978. "'Tough Sentence' in Japanese", dans *Problems in Japanese Syntax and Semantics* édité par J.Hinds et I. Howard, Kaitakusha, Tokyo.
- Kim, J. M. 1997. *Lexique-Grammair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du coréen*.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 \_\_\_\_\_. 1998. "Sur le phénomène d'alternance de particules dans les constructions à adjectif psychologique ou de tough-movement en coréen". *Revue d'Etudes Francophones* 8.
- \_\_\_\_\_. 2003a. "Alternance de particules dans les constructions 'tough' en coréen", 『프랑스어문교육』 제 16집.
- \_\_\_\_\_. 2003b. "The Validity of Thematic Roles in Korean Syntax: Unaccusative and Unergative Verb Constructions". dans *Proceedings of ICKL-TU Berl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Corpus Linguistics*, 21-22 July 2003.
- Kim, Y. B. 1988. "Tough and quasi-tough constructions in Korean", dans *Papers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édité par E. J. Baek. Hanshinmunhwasa.
- Kuroda, S.-Y. 1973. "Where epistemology, style and grammar meet: A case study from Japanese", dan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édité par Anderson, S et P. Kiparsky, pp. 337-391. New

-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Labelle, M. 1992. "Change of state and valency". *Journal of Linguistics* 28.
- Lasnik, H. & R. Fiengo. 1974. "Complement Object Deletion". *Linguistic Inquiry* 5.
- Lee, C. M. 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Thèse de doctorat, Indiana University.
- Legendre, G. 1986. "Object raising in French : A unified accoun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4.
- \_\_\_\_\_. 1989. "Unaccusativity in French". *Lingua* 79.
- Levin, B. & M.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 interface*. The MIT Press.
- Montalbetti, M. & M. Saito & L. Travis. 1982. "Three ways to get tough", dans *Papers from the 18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édité par K. Tuite et al. Chicago University.
- Nanni, D. 1978. *The Easy Class of Adjective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Nichigauchi, T. 1984. "Control and the Thematic Domain". *Language* 60.2.
- Picabia, L. 1976. "Sur trois classes d'adjectifs. En marge de la transformation dite Tough-Mouvement", dans *Méthodes en grammaire française*, Klincksieck.
- \_\_\_\_\_. 1978. *L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en français*, Droz.
- Postal, P. 1971. *Crossover Phenomena*, Holt, Rinehart, & Winston: New York.
- Ransom, E. 1988. *English Complementation*, Foris Publications.
- Ruwet, N. 1972. *Théorie syntaxique et syntaxe du français*. Edition du Seuil.
- Stowell, T. 1981. *Origine of Phrase Structure*, Ph.D. Dissertation, MIT.
- Yang, I. S. 1972. *Korean syntax*. Paekhapchulphansa.
- 김종명. 2003. 「불어 tough 형용사구문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제 54집.
- 남기심. 1989. 「화자의 시점옮기기와 문법」. 『이용주회갑기념논문집』.

한샘.

신재욱. 1984. 『Tough-Movement의 통사·의미적 특성』.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안근중. 1986. 『Etude sur la construction adjectivale du type: Pierre  
est facile à convaincre』.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학위논  
문.